

**유)** 천보그린 박인엽 대표는 선친에게서 배운 陰德其德耳鳴(음덕기유이명) -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는 덕은 그 귀에서 우는 소리와 같다"라는 말이 저의 평생 좌우명으로 새기며 살아왔다.  
 (사)한국노인복지 봉사회 전주지회장을 맡고 있는 정인 스님을 만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정인 스님이 "(박인엽씨)가 70세인데 앞으로 회장님 같은 분이 나타나 주셔야 다른 분도 그것을 보고 세상에 나오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에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작은 정상이나마 봉사의 참 뜻을 알리게 됐다.  
 박인엽 대표는 부안 동진면 출생으로 젊어서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쌀의 소중함을 알고 살았다.  
 옛날에는 가난한 시절이라 배고픔을 겪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을 후원하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유)천보그린 박인엽 대표를 만났다.

## 사회 보탬 되는 한 알의 씨 되어 최선 다해 살아갈 것

### ▲(유)천보그린 회사는 언제부터 운영 하셨나요?

1994년부터 보건복지부에 감염성폐기물 운반 허가를 받으면서 시작해 지금에 유한회사 천보그린 사육신축이전까지 했다.

### ▲봉사활동을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국제 로타리 클럽에서 30여년 정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자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한국노인복지 봉사회 전주지회 부지부장을 2002년부터 맡으면서 후원을 하고 있다.

### ▲남 몰래 선행을 했는데 어떠한 일을 했나요?

초년에 부안에서 농사를 지으며 쌀의 소중함을 너무도 잘 알고 살았다. 유년시절부터 배고픔을 겪어 살아왔기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고픔의 설움을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다. 어머니는 66세에 작고 하셨다. 그 당시 어머니 친구분들이 16명이 계셨는데 그때부터 16분에게 후원을 시작했다. 지금은 어머니 친구분들이 2명만 생존해 계시고 다 돌아가셨다. 또한 명절이면 2번씩 쌀을 병원마다 10여 포대씩 떡을 만들어 드리고, 독거노인 홀로 계신 어머니와 같은 분들에게 30여년동안 쌀을 손수 배달해 드렸다.

1년이면 300포대(쌀, 추석 20kg)를 후원하는데 어머니 그리움 마음에 독거노인들을 보면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행복해진다. 이 뿐만 아니라 어버이날 금일봉도 전했다. 66세에 16명에게 어머니 친구분들에게 해오다 이제는 2명 남았다.

### ▲2017년 대한민국 인류를 빛낸 대상 수상을 받으셨는데 어떤 상인지 궁금합니다.

2017년 대한민국 인류를 빛낸 대상조직위원회로부터 '2017 대한민국 인류를 빛낸 대상'을 수상했다. 노인복지부분 대상을 받은 것이다.

3개월정도 심사를 거쳐 선정(복지)됐다. 평소에 맡은 분야에 크게 기여한 점과, 사회에 공헌에 남달리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이 상은 대통령상 그 어떤 상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봉사를 해오면서 남몰래 도운 것이 결실로 이어진 것 같다. 많은 경쟁들과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받아서인지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이 소중한 상을 준 것은 앞으로도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 ▲정인스님과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됐나요?

절에서 불자로서 신도로서 만났다. 스님을 만나면서 봉사를 통해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어떻게 다할까도 많이 생각했다.

그 결과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것이 어머니에게 못다한 효도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암환자, 심장병 환자, 수술비 등을 기부해주고, 장애인2급에게는 1년에 1천만원씩 5년째 후원해 오고 있다.

### ▲대표님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나요?

우리 사회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한 알의 씨가 되어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 한다. 살아가면서 힘이 닿는대까지 독거노인 등 어렵고 힘들어 하는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도 도움을 주며 살고 싶다.

/채규남 기자



어렸을때부터 배고픔 겪어 살아왔기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 주고자 선행 시작 독거노인들에게 30여년동안 쌀 배달

덕분에 노인복지부분 대상 수상받아 그 어떤 상보다도 소중해... 선행 '결실'로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더 도움 주고

박 대표가 운영하는 천보그린 전경(위)과 내부(아래).



정인 스님(왼쪽)과 함께 한 박 대표.



박 대표가 받은 '2017 대한민국 인류를 빛낸 대상' 상장.